

독도 알림판

자료집

독도를 지키는 안용복



안용복 (?~?)

조선 후기 어부이자 민간외교가. 울릉도에 출어했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여 이를 문책하고 일본에 가서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해방 이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오자 안용복은 '안용복 장군'으로 높여 불리며 다시금 기억되기 시작하였다.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에서 안용복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67년 10월 30일 수영 사적 공원 내에 안용복 충혼탑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장군의 업적에 비하여 충혼탑이 왜소하다고 하여 수영구에서도 안용복이 수군 병졸로서 활동하였던 수영동에 사당을 지어 그 업적을 기리게 되었다.

▲ 안용복장군 충혼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한 안용복의 사당인 수양사에 위치하고 있다.

동래부 출신으로 동래 수군으로 들어가 능로군으로 복무하면서 왜관에 자주 출입하여 일본 말을 잘 하였다. 1693년(숙종 19)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독도를 침입한 일본 어민을 힐책하다가 일본으로 잡혀갔다. 일본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받아냈다. 이를 가지고 돌아오던 중 쓰시마도주에게 빼앗겨 서계가 죽도가 일본땅이므로 고기잡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위조되어 조선에 들어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울릉도는 조선의 땅임이 명백함을 밝히고 1694년 일본의 무례함을 힐책하는 예조의 서계를 전달하였다. 이후 안용복은 1696년(숙종 22) 박어둔과 다시 울릉도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송도(독도)까지 추격하여 정박시킨 후 조선의 바다에 침범해 들어와 고기를 잡은 사실을 문책한 다음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고 자칭하고, 일본 호키주에 가서 번주에게 범경의 사실을 항의하여,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이듬해 일본 막부는 쓰시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일본의 출어금지를 통보해왔다. 안용복은 나라의 허락없이 외국을 출입하여 국제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조정에 압송되어 사형까지 논의되었으나 지사 신여철등이 '나라에서 하지 못한 일을 그가 능히 하였으니 죄과와 공과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여 귀양에 처해졌다. 이후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없어져 그의 공로가 크다고 할 것이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증거

세종실록지리지 (세종14, 1432년)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기히 바라볼 수 있다. (...) 우리 태조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도 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 함을 듣고, 다시 삼척 사람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서 사람들을 쇄출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동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

-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동국여지승람 (중종25, 153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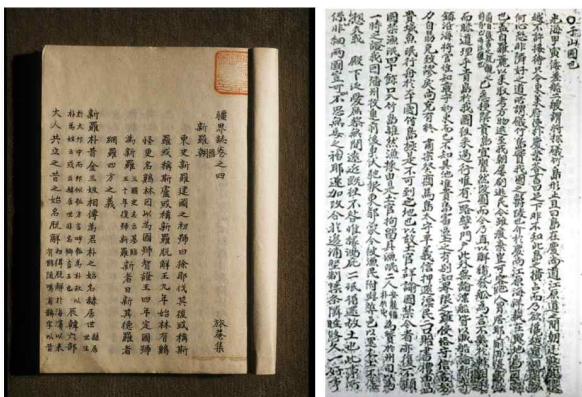
무릉과 우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서 지방이 백리라고 한다. (...) 세종 20년에 울진현 사람 만호 남호를 보내어서 수백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도망해 가 있는 백성들을 수색하여 김환 등 70여 명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니 그 곳 땅이 그만 비었다.

성종 2년에 따로 삼봉도(三峯島)가 있다고 알리는 자가 있어 박종원(朴宗元)을 보내어 가서 찾아보게 하였는데, 풍랑으로 인하여 배를 대이지 못하고 돌아왔다. 같이 갔던 배한 척이 울릉도에 정박하였다가 큰 대나무와 큰 복어를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섬 중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 『신동국여지승람』

▲신동국여지승람

강계고(영조32, 1756년)



성종 3년(1472)에 삼봉도(三峯島)를 찾기 위해 박종원을 파견했으나 풍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살피건데(신경준)"여지지에 이르기를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圖志)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倭)가 말하는 송도(松島)인데 모두 다 우산국(于山國)이다"라고 하였다"는 주석을 달았다. 1472년 박종원이 비록 삼봉도를 찾지 못하였지만 여지지의 기록임을 들어 우산, 울릉이 두 섬임을 지적하였다.

- 『강계고』

▲강계고

독도에 사는 생물



괭이 갈매기



벵에돔



바다제비



개볼락



오징어



독도새우



홍합



된장잠자리

독도의 지질명소



3형제 굴바위

원안 앞 바닷가 왼쪽에 우뚝 솟아 있는 3개의 바위를 일컫는 것이다. 3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부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 부분만 3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다. 이 자료는 조선왕조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대단히 주목된다.



천장굴

해식동굴이며독도의 동도 동쪽 끝 부분에 깊이가 100m 정도 되는 컵 모양의 분화구가 있다. 이름은 침식에 의해 생긴 동굴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독립문 바위

독도의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바위의 모양이 독립문의 형상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는 해식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절리가 발달하였다.



숫돌바위

이 바위는 동도 선착장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 후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이 생활할 당시 칼을 갈았다는 곳으로, 바위의 암질이 숫돌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독도경비대

Dokdo Guards 또는
Ulleung-Dokdo Coast
Guard(UDCG)라고 부른다.

하지만 Dokdo Security
Police(DSP) 가 정식명칭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의 육상경비 부대이고, 관할



지방청은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닌 경북지방경찰청이다.

1956년 4월 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았다.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318전경대와 통합하여 1996년 6월 27일 창설한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사실상 경북지방경찰청 직속으로 두고 있다.

독도경비대는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독도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순시선 등 외부세력의 침범에 대비하여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해안경계를 하고 있다. 유사시 인근 해경, 해군, 공군과 통신이 가능한
통신 시설 등을 갖추고 영해를 침범하는 외구세력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저지토록 하고 불법으로 독도에 접근할시 체포 또는 나포하여 독도를 지킨다.

지키는 당사자인 독도경비대가 '분쟁지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치안구역'을 지키는 경찰이기 때문에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며, 독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도씨 부부 및 기타 민간인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이 배치되었다.

독도 1호 주민



1980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독도가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이며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1981년 10월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이곳에 거주한 독도 주민 1호이다. 당시 독도로 옮긴 최종덕의 행정 주소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 67번지 독도의 서도 벼랑어귀였다. 최종덕이 거주하는 동안 사위 조준기도 독도에 함께 거주하였다. 조준기는 1991년 울릉읍 도동 산 63번지에 전입하여 독도 주민이 되어, 8년 동안 독도에서 거주하였다. 조준기는 거주하는 동안 아들 조강현과 조한별을 출생함에 따라 자식들이 모두 주민등록상 출생지가 독도로 공인된 최초의 한국인들이 되었다. 이렇게 최종덕의 집안은 3대가 독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가 2000년 8월에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했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또한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0년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에서 16개 시 도 교총, 우리 연사 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단위의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